

숨 정 이

성신 강림 대축일

제 1독서 : 사도 2,1-11

제 2독서 : 1고린 12,3b-7,12-13

복 음 : 요한 20,19-23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요한 20, 22b-23a)

강론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김기곤 신부 / 굴라라 수녀원

인공호흡이란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숨을 멈추었을 때 그 사람의 입이나 코에 숨을 불어넣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숨을 쉬도록 해 주는 인위적 호흡법이다. 그런데 이런 인공호흡에 있어서 숨을 불어넣은 사람과 숨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생명의 건넌과 받음이 있다고 하겠다. 곧 숨을 불어넣는 사람은 숨을 멈춘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되고 이 힘으로 살아난 사람의 입장에서 숨을 준 사람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을 다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신강림 대축일인 오늘, 요한사가가 들려주는 복음 내용은 위와 같은 인공호흡의 원리를 연상케 한다. 예수와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이 스승 예수의 죽음으로 더 이상의 삶에 생기를 갖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복음의 표현대로 안식일 다음날 유대인들이 무서워 어느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는만큼 제자들은 정지된 삶, 삶의 죽음에 이르고 있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치도 인공호흡으로 그들을 소생시키듯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심은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을 닮은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창세 2,7) 창조적 설화는 달리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무서움으로 굳어지고, 경직되고, 정지되어 있던 제자들을 희망과 기쁨으로 역동시킨 구원적 힘이셨다. 이 힘으로 제자들은 문을 제치고 밖으로 나가 “집사가에 못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사도 2,36. 2독서 12,3)고 선포케 하신다. 이 선포와 더불어 그리스도는 제자들 또한 당신과 같이 죽음의 승리자로, 절망의 정복자로 세상에 나가 살도록 명하시고 제자들 안에서 부활하신 당신 영(성령)이 이어지고 계속되게 하신다.

죽음과 절망으로 치닫게 하는 악과 죄를 당신 스스로의 죽음과 부활로 쳐부수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자들의 이런 파견된 삶을 통해 친히 사람들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영의 작용은 지속될 것이다.

소리

어느 날의 일기

5월 XX일 / 날씨 흐림

어제는 할아버님 기일이어서 대전에 사시는 작은 아버님과 작은 어머니가 오셨다.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 예보에 집 고치는 일로 마음이 바쁘신 작은 아버님이 갈 길을 서두르신다. 이른 출근길에 따라나서신 작은 아버님, 조카에게 하시는 걱정어린 당부말씀이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한다.

주무시는 어머니의 숨결이 고르지 못하니 마음을 쓰라는 당부시다. 어쩌다 늦게까지 일거리에 매어 있다 보면 고르지 못한 어머니의 숨소리에서 피곤함을 느끼며 혼자만 걱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쓰지 못한 터라 작은 아버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슴이 무겁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랍시고 늙으신 어머니에게보다는 자식 일에 더 마음을 쏟게 사실이다. 가끔 밤늦게 문을 밀치는 자식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나다. 그러면서 자식에게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까?

어버이날, “할머니 무슨 선물 사드릴까?”고 묻는 손자에게 어머니는 “밥이나 제때에 먹고 건강하거라”고 말씀하신다. 그저 매사에 당신 몫은 하나도 없으시다. 다 주신다. 용돈이 생기면 그것마저도 손자나 자식의 몫으로 돌리고 마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어머니, 그분은 나의 영원한 스승이시다. 어머니, 이렇게라도 철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숨정이 산책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자.

성서교실 39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였다”(창세 29, 15~30)

위의 성서 본문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이다. 처음에 라반의 제안은 아무런 사심이 없는 것 같다. 조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품삯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해드릴테니 작은 딸 라헬을 달라고 청한다. 이 말에는 부인을 재산으로 간주했던 당시의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7년의 세월은 신랄될 사람이 지불해야 될 돈을 일로 환산시켜 계산한 댓가이다. 7년의 임금은 매우 높은 가격이지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열렬한 사랑이나 라반의 정도를 넘는 욕심에 비해 결코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겠다. 라헬 말고도 라반에게는 레아라는 딸이 있었다. 레아라는 이름은 암소라는 뜻인데 암양이라는 뜻의 라헬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의 저자는 레아를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소녀로 묘사한다. 여기서 부드러움이라는 표현은 ‘약간 멍청하다’ 또는 ‘눈의 초점이 다소 흐리다’라는 부정적인 뜻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암소처럼 착하고 순박하긴 하지만 별다른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다’고 묘사된다.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보다는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고 말한다. 이 말 속에도 당시의 결혼 관습을 엿볼 수 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사촌이 혼기가 찬 소녀의 첫 결혼 상대가 될 자격과 권리가 있고, 사촌이 그 권리를 포기하면 다른 친척들에게 청혼권이 돌아간다. 이 관습은 씨족의 결속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아내를 ‘삼촌의 딸’이라고 부르기가 지 한다. 라반이 이 관습을 존중하며 야곱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이제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친척이라는 대등한 관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뀐다. 이때부터 야곱은 아무리 일이 고되더라도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날을 생각하며 참아 내었다.

마침내 약속된 7년이 지나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게 해 달라고 청한다. 이에 라반은 동

네 사람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 결혼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혼 첫날 밤 라반은 작은 딸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 보낸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서야 신부가 라헬에서 레아로 바뀐 것을 알았다. 라반의 흉계에 깜박 속은 것이다. 야곱은 삼촌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라반이 조카 야곱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반은 여기서 야곱이 형 에사오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낸즈시 꼬집고 있는 것이다. 물론 라반의 속셈은 “조례 기간 한 주일만 채워 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칠년 동안 내 일을 해주어야만 하네”에서 드러난 것처럼 라반은 일 잘하는 조카를 더 오랫동안 붙잡아 둘 목적으로 자기의 두 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야곱 역시 라반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사오에게 저지른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삼촌의 말에 양심이 찢린 데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라헬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서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야곱은 레아를 위한 일주일 동안의 혼인잔치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삼촌의 집에서 일해 주기로 결정한다. 덕분에 라반은 라헬을 위한 결혼잔치를 따로 마련해 줄 필요가 없어져 잔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면서 아버지 라반이 하녀 빌하를 팔려보냈다는 기록은 후에 라헬이 자식이 없자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소실로 들여보내 아들을 낳도록 했다는 구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은 정태현 신부의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향토회관
회갑, 결혼피로연 등 단체손님 환영
안춘자(소피아)
성락프라자 지하 (북진주 세무서 앞)
☎ 75-7666

형제 카센타
타이어·배터리·제네레타 세무모다. 24시간대기, 출장수리
유춘원(미키엘)
유연자(수산나)
☎ 225-3956

특별 우대
유베라
출산준비 신생아 유아복 전문점
유총상(루까)
송옥희(안나)
중앙상가 1층 230호
☎ 252-2398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즙기, 마마깨주부
최학만(바오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254-7928~9
FAX (0652)254-2931

잠깐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5. '태아의 발' 배지는 생명 존중의 표현

'세계 가정의 해'를 지내며 우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소리 높이기 위하여 '10주 된 태아의 발 배지 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을 형성하는 순간 탄생한다. 바로 이 순간에 한 생명이 시작되며 성장과 변화를 계속한다. 10주 된 태아는 손과 발이 완전히 형성되며 지문까지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이 시기의 태아는 눈을 뜰 수 있고 이마에 주름살을 지게 할 수도 있다.

'낙태 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기존의 형법 제 269 조는 낙태의 허용 기간을 28주 이내로 규정한 모자 보건법(14조)이 1973년 제정됨으로써 사문화되고,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낙태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모자 보건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 개정안 제 135 조(낙태의 허용 범위를 20~24주로 개정)는 허용 좋을 뿐, 핵심은 태아 살인(낙태)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10주 된 태아의 발 배지는 이 땅에 만연된 생명 경시 풍조를 고발하면서 태아도 온전한 인간이라는 생명의 진리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다. 이 배지를 다는 것은,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신앙 고백이 아니겠는가. (태아의 발 배지를 원하는 분은 각 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이나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02-466-0235)로 주문하시면 된다. 한 개에 500원씩 보급하고 있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제공

교구 소식

1. 천호 피정 안내 : 5월24일(화) 주제-성령이 주시는 생명, 강사-이수현 신부 문의 73-6600
 2. 관구 성직자 체육대회 : 5월26일(목) 오전10시30분 광주 가톨릭대학교
 3. 사무장·사무원 소풍 : 5월24일~25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 출발
 4. 청소년 주일 행사 : 5월29일(일) 오전9시30분 운호관
 5. 혼인강좌 : 5월29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각 10,000원
 6. 교도소(재소자) 성가 경연대회 : 5월25일(수) 오후1시, 각 본당 후원회원들의 참여와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7. 은혜의 밤 철야 기도회 : 5월27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8. 종교 음악 연구회 정기교육 : 5월23일(월) 오후1시 가톨릭센터 4층
- ※ 축! 영명 : 23일(성 디디에) 지정환 신부

- **성소모임** 착한목자수녀원(피정) : 6월4일~6일 춘천수녀원(0361)262-4617
-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상담 (0652)222-5269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맑은 물을 위한 가정생활 지침(4)

쓰다 버리는 식용유를 물과 같이 흘려보내지 말고 휴지 같은 것에 흡착시켜 쓰레기 통에 버립니다.

현대전자전주서비스센터

- 컴퓨터 연중 무휴 교육 실시
 - 제품 공장도가 구입가능
 - 수강료 1인 5,000원(주간,야간반)
- 김 대 식(대견안드레아)
공설운동장 정문 맞은편
☎ 251-1472

감사드립니다

모친(조옥단 마리아)을 잃은 저 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신 순정이, 효자동, 서신동 성당 신부님, 수녀님, 교우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김 신 자 미카엘라 가족

할 티 생 수

- 청주교구 미원성당 샘물
김 일 수(요 션)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군산(0654) 64-4481

요십이 (1082)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성전건립을 위해 마련한 바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교우여러분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앞치마 현금 5,080,680원) 평화동 성당 이재후(토마스) 신부 사목회장 감삼근(미카엘)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때 : 5월29일 오후 2시
· 곳 : 삼랑진 본원
· 문의 : ☎(0527)52-4241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토)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 ◎ 성신 강림 대축일
◎ 주의 승천 대축일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반희창 경결: 중노20반 나눔순(호노라다)→이영님(엘리사벳) 수고하시겠습니까.
 2. 성모의 밤 행사: 25일 후 7시30분
 3. 유아세례: 28일 후 3시 사무실에 신청
 4. 반미사 안내: 26일-중노16반 후 3시
27일-중노18반 전 10시
 5. 전례봉사자 교육: 29일 장엄미사 후
 6. 영세자 면담: 6월2일(목) 6월4일(토) 후 3시 저녁미사 후
 7. 영세자 집중교리: 6월7일~10일 후 3시 저녁미사 후
 8. 모임: ①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제대회(24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6일 전 10시30분)
④청년연합회(28일 특전미사 후)
 9. 건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1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타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증명서 첨부)
 10. 금주 청소: 중노17, 18반. 차주 청소: 중노20, 21반

-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1. 성모회: 5월22일(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의 밤 행사: 5월28일(토) 저녁미사
 3. 성전 보수 헌금 신입하신 분(지남주): 조민재(백라도) 50만원, 윤병철(아오스당) 30만원, 익명 30만원, 최금돌(금구), 최영자(글라라), 방중혁(대전안드레아) 3명 각 20만원, 김정자(엘리사벳), 김명순(테레사), 성문식(아우구스티노), 이영숙(테레사), 김병수(아나스파시오), 권옥희(보나), 김순희(부시아), 유삼효(안나) 8명 각 10만원, 한원옥(박달레나), 김성근(베드로) 2명 각 5만원, 이진원(마태오) 3만원, 익명 3만원, 조바래(마리아) 2만원. 지남주 신입액 2백4십8만원.
* 5월13일 현재 2백2십3세대 신입하였음.
 4. 예수 승천 야외행사에 협조와 수고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사무실 휴근: 5월24일~25일(사무장 소풍)
금주 전례: 해설-이동재, 독서-신오철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전방구, 독서-김익진, 박안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1. 성모의 밤 행사 안내: 5월28일(토) 오후 7시30분
· 제1부: 미사-저녁 7시30분
· 제2부: 성모의 밤 행사-저녁 8시
(조 봉헌-각자 빈첸시오에서 구입 꽃 봉헌-각 신실단체 및 개인으로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유인을 참조바랍니다)
2. 병자 봉성체: 27일(금) 병자 가정에선 사무실에 신청바람.
3. 유아세례: 28일(토) 오전 7시
4. 빈첸시오회: 28일(토) 오전 10시
5. 성당 청소: 21일(토) 집순하신 자의 모후Pr, 셋별Pr
6.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씨
독서-장현상 씨 부부
봉헌-정진기 씨 가족
7.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씨
독서-신재근 씨 부부
봉헌-조옥례 씨 가족
8. 신협직원 모집: 남○명, 5월23일 오후 5시까지
문의: 88-4404(복자신협으로)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 완 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형

-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입니다.
1. 금주: ①영세식(공식미사중)
②성화회 가족 단합대회(전 8시30분 출발, 지리산 바래봉)
 2. 교구 사무장·원 소풍: 24일~25일 사무실 휴무
 3. 관구 성직자 체육대회: 26일 오전 10시30분-광주 신학교
 4. 성지회: 27일(금) 오후 8시
 5. 차주: 청소년주일 행사(전 9시30분, 윤희관)
대상-중·고학생
②혼인강좌(전 9시30분 썬타)
③차량 축성식(공식미사 후)
 6. 성모의 밤 행사: 31일(화) 오후 8시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동 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 신자의 의무인 주일미사를 꺾지 않습니다.
1. 모임: ①성모회-다음주일
②유아영세-다음주일, 오전 9시30분
 2. 성모의 밤: 28일(토) 저녁 8시
성모님께 드리는 글, 꽃, 초 봉헌
꽃 봉헌하실 분은 수녀님께 접수하세요.
 3. 성직자 체전: 26일(목) 광주 가톨릭 대학
 4.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 다음주일
 5. 금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차주-구세주의 모친Pr
 6. 감사: 승천 축일 야외미사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7.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이순자
봉헌-이준희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남현준 ②주영례
봉헌-황옥섭 씨 부부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새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 삼 근

- ◎ "축" 첫영성체: 46명의 어린이 축하합니다.
1. 관구 성직자 체육대회: 26일 전 10시30분 광주 신학교
 2. 선택인의 날: 22일 전 10시 윤희관 오전헌
 3. 교도소 성가 경연대회: 25일 후 1시 각 본당 후원회원등의 참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4. 젊은이의 날: 29일 전 9시 윤희관, 우리들의 고민은?
 5. 병자 봉성체: 27일 오전 9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6. 사무장, 사무원 소풍: 24일~25일 즐거운 시간 되시길...
 7. 혼인강좌: 전 9시 가톨릭센터, 회비-1인당 1만원
 8. 성가대원 연수회: 28일 오전 10시 성당에서, 강사-이성우 신부,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9. 축 틀기 봉사: 23일 오전 10시 출발, 각자 도시락 준비
* 앞차마 헌금이 감사: 5,086,800원, 성전 건립을 위해 사랑 담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삼천동 본당 김진룡 신부님과 모든 교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